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ADP, "8월 미 일자리 5만 4천개 추가...예상보다 낮아"
- Bloomberg: 미 기업들 일자리는 축소하고, 고용 계획은 줄여
- Reuters: 2분기 미 근로자 생산성, 수정치 상승
- Bloomberg: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도 6월 이래 최고치

[미국 금융]

- Bloomberg: 골드만삭스, "금값이 5천불까지 갈 수 있다"
- Bloomberg: 월가 투자자들,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 커져"

[트럼프 정책]

- WSJ: 연방법원, "트럼프의 하버드대 펀드 삭감 조치는 위헌"

[무역 전쟁]

- Bloomberg: 일본 무역 협상 책임자, 다시 미국행

[전기 자동차]

- YahooFinance: 기아/현대차 등 하이브리드 차량 확대로 8월 판매량 증가...관세 불
구
- Bloomberg: GM, Bolt EV 생산 계획 축소...세액 공제 중단 대비해

[오일]

- NYT: 미 최대 석유회사들, 수천 개 일자리 없애
- Bloomberg: 유가 하락...OPEC+의 추가 증산 우려로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금융 전문가가 여행 상담가로 바뀐다
- WSJ: 맥도날드, "최저 임금 이상 받아야한다" 입장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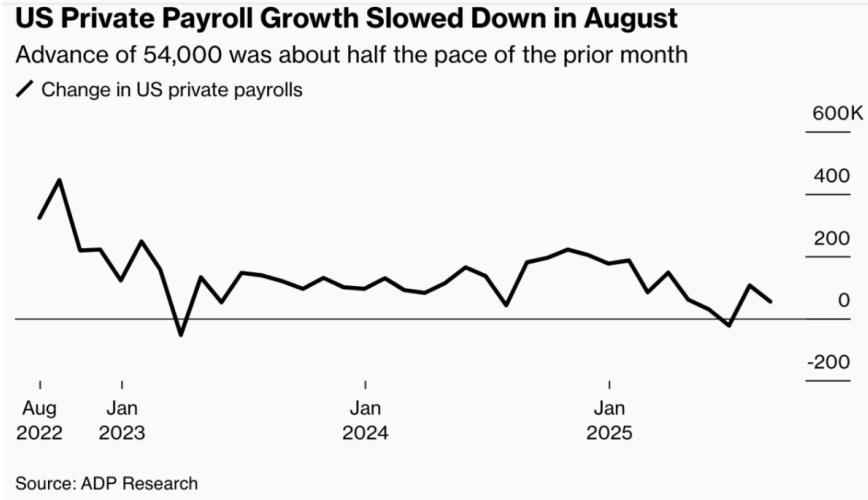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Firms Add 54,000 Jobs in ADP Data, Less Than Forecast ADP '8월 미 일자리 5만4천개 추가...예상보다 낮아'

- 미국 기업들의 8월 고용 숫자가 예상보다 적었다. 5만4천개 증가.
- ADP 리서치의 오늘 목요일 보고에 따르면 노동 시장이 둔화되는 점을 시사하고 있
는데 채용 공고 감소, 임금 상승 감소, 특히 최근 수개월 동안 일자리 상승이 크게 위
축되고 있다.
- 한마디로 구인 수요가 줄고 있다.

- 임금 상승은 별반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직장을 옮긴 이는 임금이 7.1% 상승했고, 직장 변경치 않은 직원의 상승률은 4.4% 였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Hiring Intentions Pull Back While Job-Cut Announcements Rise

미 기업들 일자리는 축소하고, 고용 계획은 줄어

- 재취업 서비스 기업인 Challenger, Gray & Christmas에 따르면 8월에 고용 계획이 기록적으로 떨어졌다. 광범위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고용 축소 계획도 늘고 있다.
- 8월 미 기업의 고용 예정 숫자는 1천4백94개로 관련 집계 시작된 2009년 이래 월간 단위로 최저치다.
- 고용 계획도 주로 항공, 국방, 산업재와 소매업종에 집중되고 있다.
- 8월 계획되었던 고용 숫자도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 8만5천9백80건으로 지난 202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Reuters: US second-quarter worker productivity revised sharply higher

2분기 미 근로자 생산성, 수정치 상승

- 올해 2 분기에 미 근로자 생산성이 당초 추정보다 더 빨리 상승했다. 노동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
-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성을 보여주는 비농가 생산성은 2분기에 연율로 3.3 증가했고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 통계국은 밝혔다. 이는 당초 2.4% 생산성 상승률보다 높게 수정된 것이다.
- 한편 1분기 생산성은 1.8% 감소했으며 작년 동기보다는 1.5% 상승했다.

Reuters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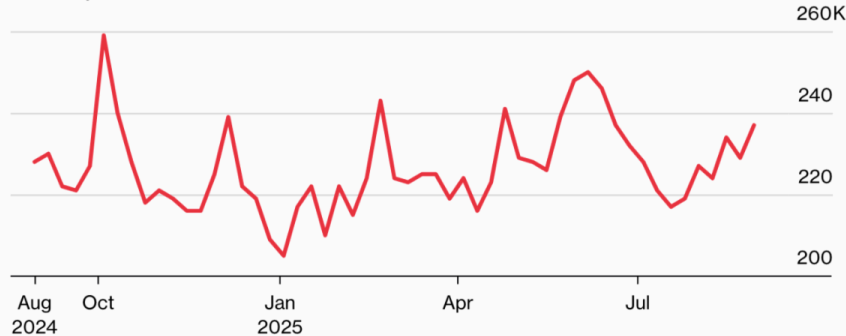
Bloomberg: US Initial Jobless Claims Rise to Highest Level Since June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도 6월 이래 최고치

- 8월 말에 끝나는 주간 미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6월 이래 가장 높게 늘었다.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또다른 증거.
- 8월 30일에 끝나는 주간의 관련 실업 청구 건수는 8천건 늘어난 23만7천 건으로 나타났다. 예상치는 23만 건이었다.
- 기업들은 트럼프의 무역정책들이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예의 주시 하면서 고용을 더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US Initial Jobless Claims Climb to Highest Since June

New filings rose to 237,000 in the week ended Aug. 30

Initial jobless claims



Source: US Labor Department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Goldman Says Gold Near \$5,000 Possible If Fed Standing Damaged

골드만삭스 “금값이 5천불까지 갈 수 있다”

-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국채 일부를 금 투자로 전환하기만 해도 금값은 온스당 5천불 까지 갈수 있다고 전망했다.
- 이 기관 분석의 시나리오는 연준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높은 인플레이와 주가와 국채 장기물 가격 하락, 그리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약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들은 또한 다른 변수들이 없다고 가정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소유한 미 국채의 1%만 금 투자로 바뀔 경우 금값이 거의 5천불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Wall Street Strategists See More Unease on Fed Independence

월가 투자자들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 커져”

- 월가 전략가들은 전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연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리를 낮추려고 시도함에 따라 연준 독립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현재 연준 이사 Lisa Cook을 해고하고 그의 가까운 측근 어드바이저인 Stephen Miran를 그 자리에 앉히려 하고 있다.
- JPMorgan Chase & Co.에 따르면 금값 랠리, 가치주 선호, 국채 5년물과 30년물 간의 금리 스프레드 확대등을 보면 거래자들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골드만 삭스도 미 국가 제도적인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금값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트럼프 정책]**WSJ: Trump Administration's Cuts to Harvard Funding Are Unconstitutional, Judge Rules****연방법원 “트럼프의 하버드 펀드 삭감 조치는 위헌”**

-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의 연구 자금 22억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있다고 대학은 손을 들어주었다.
- 법원은 지원 삭감은 구실로 반유대주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법원은 하버드 대학이 수정 헌법 제1조 행사에 보복하기위해 추가적인 기금 축소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행정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WSJ 기사

[무역전쟁]**Bloomberg: Japan's Akazawa Visits US After Staff-Level Talks Progress**
일본 무역 협상 책임자, 미국행

- 7월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고 최근 실무급 양측 모임이 끝나면서 일본 측 무역협상 책임자인 Ryosei Akazawa이 미국으로 떠났다.
- 이같은 방미는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낮추고 일본에 대한 기존 관세에 새로운 보편 관세 중복 부과를 막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 현재 일본 수상이 사임을 자민당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양국 무역협상 이행 때문에 일본 수상이 계속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전기자동차]**YahooFinance: Ford, Kia, Hyundai sales charge higher in August, shaking off tariffs and fueled by EVs**

기아, 현대차 등 하이브리드 차량 확대로 8월 판매량 증가...관세 불구

- 포드, 기아, 현대의 8월 판매량이 급증했다. 이는 전기차 세액 공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비자들이 전기 자동차 구매를 서둘렀기 때문이다.
- 포드는 8월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149만 2천 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전기 자동차의 판매량은 약 20%나 급증했다.
- 기아 또한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8월에 폴사이즈 EV9 판매량은 전월 대비 54%, 중형 EV6와 소형 니로 EV는 각각 39%와 57% 증가했다.
- 현대자동차는 8월에 판매량이 12% 증가해 88,523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11개월 연속으로 판매량이 증가한 것이다.
- Cox Automotive는 8월 보고서에서 전기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는 현상이 9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높아지는 가격과 부족해지는 재고로 인해 수요가 억제되면서 신차 시장이 4분기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YahooFinance 기사

Bloomberg: GM Cuts Planned Bolt EV Production as Trump Incentive Loss Loom

GM, Bolt EV 생산 계획 축소...전기차 세액 공제 중단 대비해

- GM(General Motors)는 플러그인 소형차인 Bolt 전기차를 2교대로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불확실한 수요로 인해 12월부터 이를 1교대로 줄일 예정이라 밝혔다.
- GM은 전기차 구매에 대한 소비자 세액 공제 혜택이 만료될 것에 대비하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산을 감축하는 것이다.
- 또한, 캐딜락 SUV 모델과 비스탁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는 테네시주의 조립 공장도 가동 중단할 것이라 전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GM은 전기 자동차 생산을 줄이고 2027년에는 대형 픽업트럭과 SUV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Bloomberg 기사

[오일]

NYT: The Biggest U.S. Oil Companies Are Eliminating Thousands of Jobs 미 최대 석유회사들, 수천 개의 일자리 없애

- 미국의 최대 석유 회사들이 저조한 유가에 시달리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기 위해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있다.
- 휴스턴 소재의 석유 회사인 ConocoPhillips는 최근 전 세계 직원의 25%를 감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최대 3,250명을 감원한다는 것인데, 이들은 대부분 올해 안에 감원될 예정이다.
- 유가 하락으로 ConocoPhillips의 올해 2분기 이익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20억 달러를 기록했다.
- 미국 석유 회사 중 두 번째로 큰 셰브론은 올해 약 9,000명의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서비스 부문의 6월 고용률은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은 생산량을 최고치로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NYT 기사

Bloomberg: Oil Falls on Concern OPEC+ May Boost Supplies at Weekend Meeting

유가 하락...OPEC+의 추가 증산 가능성 우려로

- OPEC+이 일요일 회의에서 공급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하락했다. 이는 OPEC+이 주말 회의에서 추가 인상안을 검토할 것이라 발표한 데에 따른 것이다.
- 석유 재고량 데이터 또한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오클라호마주 쿠싱 저장 허브의 원유 재고가 지난주 210만 배럴 증가했는데, 이는 3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 OPEC+이 시장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증산을 유지하며 브렌트유는 올해 약 10% 하락했다.
-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Samantha Dart는 “석유 시장의 과잉 공급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2026년 후반에 브렌트유 가격이 50달러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40,000 Vacations Inspire Finance Pros to Become Travel Agents

금융 전문가가 여행 상담가로 바뀐다

- 전직 법정 회계사 Lisa Reich가 2021년에 자신의 여행사를 시작하며 근무 시간은 절반으로 줄고 급여는 4배가 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금융, 법률 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떠나 급속도로 성장하는 직업군인 여행 에이전트에 합류한 것이다.
- 지난 3년간 LinkedIn에서 자신을 여행 에이전트라고 소개하는 사람의 수가 5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직업군 중 하나가 되었다.
- 미국 여행자 협회(ASTA)는 내년 미국에서 여행사를 통해 예약된 숙박, 항공편, 액티비티 등 여행 상품의 규모가 1,41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 수치는 전체 시장의 26%에 해당한다.
- 뉴욕 소재의 여행사 CIRE Travel의 설립자 Eric Hrubant는 그의 최고소득층 고객 중 일부는 연간 개인 여행에 1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출하며, 평균적으로 2주 휴가에 약 4만 달러를 지출한다고 전했다.

Bloomberg 기사

WSJ: McDonald's Escalates Restaurant Industry's Fight Over Tipping **맥도날드,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입장**

- 맥도날드는 레스토랑이 팁을 받는 직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임금 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팁 및 임금 문제로 인해 전미 레스토랑 협회에서 탈퇴하기도 했다.
- 맥도날드 CEO Chris Kempczinski는 모든 계층의 근로자가 연방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약 6개 주에서는 팁 임금 제도를 폐지했고, 맥도날드 본사가 있는 시카고는 팁 임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서비스 종사자의 팁에 대한 연방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다.
- Kempczinski의 반대 입장은 그간 팁 임금에 반대해온 노동 단체와 활동가들의 입장과 일치하며, 노동 단체들은 “팁 임금 제도는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게 만들고, 그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WSJ 기사

[보고서]

미 ADP 발표 8월 민간고용 예상 밖 저조...5만4천명↑ ADP "노동력 부족·소비위축·AI 등 다양한 요인이 채용둔화 기여"

8월 들어 미국의 민간 고용 상황이 냉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민간 조사업체 지표가 나왔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8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5만4천명 증가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7월(10만4천명) 대비 고용 증가 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7만5천명)도 밑돌았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